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5 0910

Vol. 113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Hello 닥터_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장 이현규 교수 INHA Issue_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Health touch_ 가을철 감염질환 인하심표_ 우간다/우즈벡 의료봉사





14



22



32

인하대병원

Sept

+

Oct 2015 Vol.113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한 걸음

- 04 **Hello 닥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장·혈액종양내과 이현규 교수
- 07 **Medical point**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 10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 12 **Today INHA** 육종환자의 다학제 진료
- 14 **INHA Issue**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16 **Health touch** 가을철에 유행하는 감염 질환

사랑 두 걸음

- 18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5 - 내동
- 22 **Special people** 내가 노래를 하는 이유 - 가수 박강성
- 24 **모르면 지는거다** '백주 철학' 을 한 모금 더한 크래프트 비어

나눔 세 걸음

- 26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㉔ - 환자안전의 날 행사
- 28 **INHA Focus**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 30 **인하심포**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미담 / 연평도 의료봉사
- 32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우간다 /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 34 **톡톡 악물상담** 인플루엔자 - 심한 증상과 생명 위험한 합병증 유발
- 35 **병원 탐방** 제이에스병원 이순규 병원장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39 **Info desk** 건강교실, 공개강좌, 전시회 및 공연, 파랑새 소식

숨어있는 행복 찾기

행복은 보물찾기다.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내내 거기 쫓쫓 숨어있다.

하루 24시간 곳곳에 숨어있는 자그마한 행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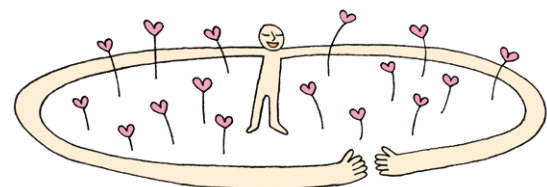
당신을 살게 하는

당신을 웃게 하는.

당신이기에 오직 당신만 누릴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그 행복을

오늘 당신은 얼마나 찾아냈는가.



김재연 | 인디고 | '너의 마음이 안녕하기를' 중에서



표지_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 의료진

관계를 풀어주는 ‘아름다운 마지막 치유’ “두려움 아니고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

이 말은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네 가지 고통 즉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를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삶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 전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가운데 오히려 오늘을 더 충실히 살지는 않을까? 무의미한 의학적 연명치료에서 환자 증상 중심으로 전인적 의료 서비스를 하는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오픈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장을 맡은 환자의 마지막 손을 잡아주는 의사, 혈액종양내과 이현규 교수를 만나보았다.

에디터_이정희 사진_송인혁 실장 / 다부스튜디오



Profile 이현규 교수는 2001년 인하대학교 의학석사 2010년 인하대학교 의학박사를 수료하였으며, 2008년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상강사를 거쳐 현재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부교수로 봉직 중이다. 대한암학회 회원, 대한혈액학회 홍보위원 등 다수의 논문과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하고 있다.

혈액종양내과 이현규 교수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치료

인하대병원은 2011년 호스피스 병동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접을 수밖에 없어 아쉬웠던 당시 상황을 먼저 전하는 이현규 교수다.

몇 년 전 호스피스 완화치료 수가시범 사업을 하었는데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이자 올해 7월 현실적인 수가 책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험 수가 적용이라는 의료 정책 변화가 있긴 하지만 김영모 병원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역시 힘들었을 겁니다. 메르스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병원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더욱 견고해진 듯합니다.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임박했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행위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도록 돕는 것이다.

가족은 해볼 건 다 해보아야,

환자는 무의식 상태로 불행하게 눈감는 현실

항암치료가 아닌 전인적인 치료(환자의 ‘정신·사회·심리적인’ 치료)와 통증완화를 위한 의학적 접근을 말한다. 또, 가족들의 심리적인 어려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돌보아주고 남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잘 받아들이고 삶을 잘 정리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 의료진이 동참하게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가의 검사, 수술,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 것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적극적 치료가 종료된 시점의 특정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치료 대상입니다. 병원 수익구조로 본다면 물

론 적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돈이 되는 의료분야가 아니다. 어쩌면 오히려 적잖은 적자 운영이 될지도 모른다. 가족의 곁에서 사랑받으며 모든 관계를 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바람, 떠난 이도 남은 이도 사랑만 기억했으면 하는... 마지막 아름다운 치유가 필요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다.

완화의료 - 고통과 통증 완화 치료가 우선

진통제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잘 써서 고통과 통증을 절감하는 것이 완화치료의 기본이다.

“일단 말기 암 환자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되지 않아요.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용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이 전문분야가 완화의료입니다. 주로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약을 투여하는 의사의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같은 상황에서도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빨리 돌아가신다는 연구도 있다고 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의학적 치료 중심에서 환자의 증상 중심으로 호스피스 완화치료

예로 대장암 4기의 환자가 수술, 항암치료를 여러 차례 했지만, 더 이상 듣는 약이 없고 체력도 쇠약해서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가 오히려 손해이고 큰 의미가 없는 경우 호스피스 완화치료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기존에는 활발하게 치료하고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일반적 케어를 받다가 임종을 하게 되거나 경제적 문제로 요양원 등에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보다 환자나 보호자는 치료 등 뭔가를 더 해달라고 요구하며 포기할 수 없다고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없는 항암치료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한다.

“그것을 충분히 서로 잘 받아들이도록 충분히 의사들도 의학적 판단을 잘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생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남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행복하게 덜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느냐가 치료의 관점인 셈이죠.”

호스피스가 누구보다 필요했던 나의 노숙자 환자

이현규 교수는 5년 전의 마음 아팠던 기억을 더듬는다. 급성 골수형 백혈병을 진단받은 동인천역에서 노숙 중인 50대 남자 환자를 치료하던 중 ‘이 환자의 장례도 내가 결정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현규 교수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도 선물했지만, 망막출혈로 책을 읽을 수 없어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를 선물하기도 했다. 나중에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아들 얼굴 한 번 보고 떠나는 걸로 위안 삼아야 할 뿐 만남이 아름답지 않아 이현규 교수는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팀 차원에서 전인적 케어,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사회복지사의 노력,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정성 등 이현규 교수 환자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을 절실히 느낀 아쉬운 기억이다.

삶의 끝에서 일하는 팀원의 치유도 중요한 몫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 남은 시간을 무의식 속에서 또는 가족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보내야 하는 환자, 해 볼 건 다해봐야 한다는 가족, 그리고 의사는 법적 소송 피해를 막기 위한 자기 방어 차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적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보던 환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덜 고통스럽게 삶의 마무리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해서 동료의사와 환자 가족들에게 잘 알려줘서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별 가족까지 돌보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인 만큼 잘 살펴야겠죠.”

이현규 교수는 마다치 않고 모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 내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또 돌보던 환자를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다.

“암 환자들의 끝까지를 항상 보기 때문에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이 많이 호스피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길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는 팀을 잘 이끌기 위해서 팀원들의 충전을 위해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의사

이현규 교수는 죽음을 시작으로 하는 의료센터 출발에 적잖은 어려움을 예상한다. 작게 시작하는 센터이지만 환자들이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삶의 끝에 선 그들이 사랑받으면서 외롭지 않게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의과대학 수업 중 그는 ‘호스피스’가 마지막 강의인데, 유일하게 박수를 받는 시간이라고 그는 전한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은 20대 청춘들, 그들에게 생과사를 막론하고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이 잘 전달되었기 때문이라.

인간의 임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현규 교수, 자신의 삶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의 행복은 잘 통하는 아내와의 대화 그리고 신앙생활을 꼽는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 그것은 행복한 삶의 완성이라고 한다. ‘호스피스 의사’라는 신이 주신 사명감을 기꺼이 받아든 이현규 교수, 그가 행복한 이유가 짐작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해를 돕는 필수 용어

암4기 VS 암 말기

암 4기와 말기 환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4기는 암 진행 정도가 원격 전이된 것을 말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장암 4기는 5년, 담관암 4기인 경우 6개월, 폐암은 1년 정도가 생존 기간이라고 한다. 말기 암 환자라 하면 기대수명이 2~6개월 정도 남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개입해야 한다. 간혹 왜 수술을 했는데도 완치가 안 되느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치를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증상이나 통증 완화 목적으로 수술하는데 이를姑息적 수술이라고 한다. 모든 수술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근치적 수술은 아니라는 말이다.

항암제 치료 바로 잡기

항암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바꾸어야 한다. 말기 암 환자에서 항암제 치료는 생존 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증상 완화이다.

Medical point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미안해! 사랑해! 고마웠어!

남겨진 가족까지 안아주는 아름다운 마지막 이별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위해 이제 인하대병원이 한 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암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는 환자와 임종을 앞둔 분 옆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사회적 편견과 장벽들을 허물고자 합니다. 삶의 마지막 고통을 함께하려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천지역의 공공의료 중심기관으로서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의료인의 사명감을 충실히 하고자 또다시 열정을 가져봅니다.

글_ 이현규 교수 / 혈액종양내과

불안과 공포 이겨내기 위한 ‘웰다잉’

한참 웰빙(well-being)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지금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나아가 웰다잉(well-dyeing)의 바람도 솔솔 불고 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존엄사니 안락사니 하는 용어가 윤리학 수업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유명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는 기사도 눈에 띄고, ‘유언장 작성하기’나 ‘관속 체험’ 같은 활동이 수련회나 워크숍 같은 곳에서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인의 40%가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열 명중 네 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암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은 질병이지만 너무도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리고, 힘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재발과 병의 진행을 경험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지 않는 더 이상 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그 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뒤에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암으로 인한 죽음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형제 중의 한 명이, 친구 중의 절반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 중의 한 명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통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겪게 되는 일임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덜고 남은 가족을 끌어안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몸부림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요? 환자들은 자신이 정말로 말기 암 환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삶을 정리할 시간, 유언을 남길 시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그리고 죽기 전에 무언가 꼭 해야 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무의미한 마지막을 맞이해 왔는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너무도 생소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통증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감내해 왔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또 그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무겁고 커다란 짐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먼저 떠나 보내는 상실감을 겪으며, 지치고 상처받는 몸과 마음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 왔는지 모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이러한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따뜻한 손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능하면 덜 고통스럽게 헤드리며, 마지막 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드리고, 소원하고 왜곡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며, 죽음이라는 여정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입니다. 환자가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당당하고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신의 성장기회로 삼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전인적인 '돌봄'입니다. 효율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어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몸부림인지 모르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도 다학제 진료 절실, '자원봉사 정신'은 필수적인 것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다학제적인 접근은 암의 진단과 치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으로 말기환자들의 통증과 고통을 완화시키며, 관련된 돌봄 팀 멤버들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리드하며,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는 보다 더 환자의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의학적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며, 각종 돌봄과 상담과 교육의 주체로서 발 벗고 뛰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신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원봉사는 의료진의 손길이 닿지 않는 환자의 삶에서 굶은일을 마다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성직자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운 과정의 의미를 찾아주고 환자들이 참된 영적인 평안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본질상 '자원 봉사 정신'은 정말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기도뿐 아니라, 직접적인 자원봉사의 손길 또한 절실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또는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명패를 보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가운데 저희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힘을 보태주실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인하대병원 임직원들의 노력이 인하대병원에서 임종을 맞으시는 분의 아름다운 이별과, 가족에 대한 따뜻한 포용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스피스의 정신이 인천지역과 온 나라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최상의 간호를 하려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한 채 안락하게 생을 마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병동 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환자와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마지막 삶을 동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_ 정미경 수간호사 / 서16병동(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마지막 삶을 동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 직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생(生)과 사(死)는 인생이라는 수레바퀴의 양면인 것이지요. 따라서 웰빙이 중요하다면 웰다잉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웰다잉을 할 것인가?

우리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은 우수한 전문의료진과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치료불능진단을 받은 말기 암환자, 임종환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생의 한 자락을 매 순간 뜻 있고 아름답고 절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프로그램과 심리적, 영적,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전인적 치료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은 환자의 병중에 따른 통증 및 증상완화 조절과 현 상태와 예후에 대해 환자와 가족과 상의하여 치료를 전담하는 혈액종양내과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진이 구성됩니다.

환자간호 및 보호자 상담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받은 전담간호사, 환자와 가족 그리고 병동 직원에게도 정서적·사회적 지지는 물론 필요하다면 경제 지원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사회복지사도 함께합니다. 영적 종교적 서비스 제공과 심리적 지지를 위한 성직자, 전담 약사, 식이에 대한 상담을 담당할 영양사가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우정을 나누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 관리와 운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 등이 전인적이며 총체적인 보살핌을 함께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내용

| 통증 및 증상 완화

돌봄팀이 함께 환자의 주요 불편증상인 통증 및 메스꺼움, 구토, 수면장애, 식욕부진, 숨참, 변비, 복수 등 불편 증상을 평가하고 증상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요법 프로그램) 계획

아로마요법/색갈테라피/음악요법/미술치료/웃음치료/마사지요법/원예치료/다도/명상치료/마지막 편지 쓰기/환자와 가족 간 용서와 화해/원망과 미움 내려놓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족들 지지모임(사별 가족 모임)/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불안감, 상실감, 비애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제적 지원(지원자격조건 확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국가적 지원대상이 되는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지원을 적극 알선해줍니다.

| 자원봉사자를 통한 신체적, 정서적 지지 서비스

목욕, 미용, 말벗, 책 읽어주기, 노래 불러주기 등

| 임종 돌봄

임종 임박 시 임종실 또는 독실 이용 배려, 임종환자에 대한 적절한 신체적, 심리적 돌봄 제공(고통 완화 처치, 환자의 신앙에 따른 기도 봉헌,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 제공 등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 분위기 조성), 환자 가족에게 임종과정과 임종 후의 일처리 등을 돕습니다.

| 영적 상담과 환자가 원하는 종교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사별 가족 돌봄

임종 후 남겨진 유족에게 지속적해서 연락하고 정기적인 유족들의 모임을 통해 상처를 서로 위로받으며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의 목표

- 말기 암 환자와 임종환자 및 그 가족을 돌보고 지지한다.
- 남은 생을 가능한 한 충만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한다.
-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긍정적으로 수용토록 한다.
- 여생을 무의미하게 연장하거나 단축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도록 한다.
-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능한 모든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지지와 돌봄을 제공하여 죽음을 잘 준비케 한다.

-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마감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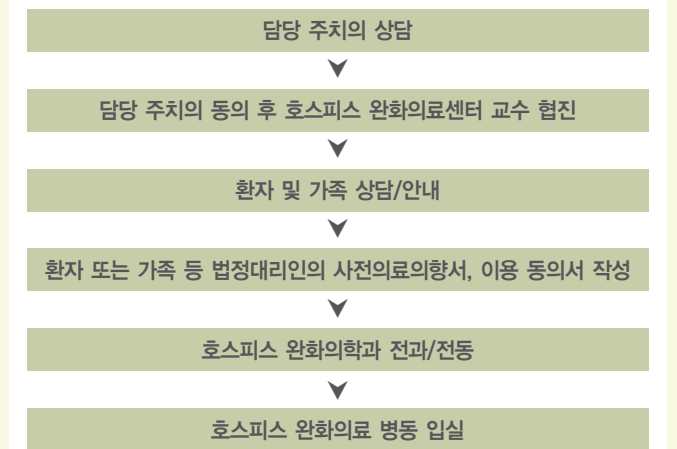
☎ 문의 :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상담실 ☎ 032-890-3744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입원 대상자(1~5까지 모두 충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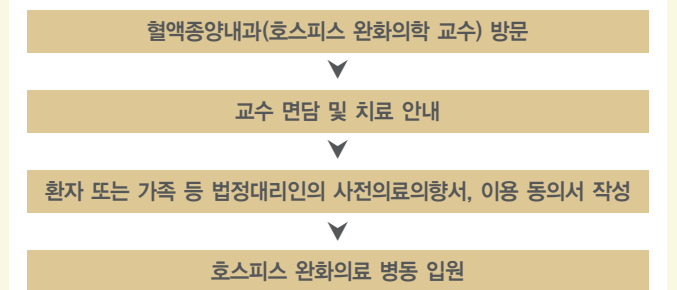
1. 말기 암 환자로서 임종이 수개월 이내로 예상된다고 진단된 환자
2. 수술 및 방사선, 항암요법으로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통증과 증상조절이 필요한 환자
3.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의사의 의뢰나 동의가 있는 환자
4. 환자나 그 가족 등 법정대리인이 의사의 진단을 수용하고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기로 한 환자
5.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입원절차

▶본원 입원환자인 경우



▶본원 타과(혈액종양내과 외의 진료과) 외래 환자인 경우



▶타 병원 이용자의 경우

타 병원 주치의 소견서나 의뢰서, 의무기록사본(최근 검사자료 : 혈액검사결과, CT나 MRI 판독결과 등), 현재 처방 받고 있는 약에 대한 의사처방내용, 필름 CD 사본(최근 검사한 영상검사인 CT나 MRI 필름사본)을 가지고 본원 혈액종양내과 방문.

안면부에 생긴 육종환자의 다학제 진료

육종은 피부 이외 결합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우 진행이 빠르고 진단이 늦게 되고 전이가 잘 되는 암이다. 특히 암세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후가 아주 불량하여 결과가 그리 썩 좋지 않은 암인데 이 '방추세포육종'은 진행이 빠르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고 알려졌고 전공의 때 아주 결과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글 기세휘 교수 / 성형외과 사진 손보광 / 홍보팀

Multidisciplinary treatment

면담 중 환자의 병력에 무거워지는 마음

환자는 한국말 서툰 중국 출신

53세 여자환자가 가지고 온 다른 대학병원의 조직검사 소견서를 보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 처음 대한 환자의 증상은 안면 관자놀이부위의 직경 3cm 정도의 피하에 발생한 종양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면담을 하는 중 환자의 병력을 듣는 동안 점차 마음속에 무거운 게 올라온다.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7개월 전 1차적인 조직검사를 하였고 당시 조직검사소견은 '방추세포육종'이었다. 환자의 병력상 처음 병원에서 수술 후 고향 중국으로 돌아가 2달 만에 또 수술하였으나 재발하여 우리 병원에 왔다고 이야기한다. 환자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온 중국 출신으로 한국어가 매우 서툴다. 보호자로 같이 온 분 역시 한국말이 서툴다. 치료의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여러 검사가 필요한데 지금 급한 게 '통역'이다. 원내 국제진료센터에 연락을 하고 중국어 통역 직원이 왔으나 보호자에게 이 상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하는데 친보호자가 아니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병이 발견되자 한국인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지낸다고 한다.

여러 진료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 나눠

수술 일정 빠르고 치료 방향 최선으로 결정

다행히 환자와 보호자가 빨리 동의를 해주어 환자의 육종 병기를 알아볼 수 있게 두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등을 시행하고 다학제진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 중앙내과 이문희 교수님에게 협진을 의뢰하였다. 며칠 후 다학제진료팀에서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성형외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등으로 이루어진 다학제진료가 준비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을 보니 전두골에 암의 침윤이 발견되어 수술적인 치료를 위하여는 신경외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음 나에게 환자가 방문한 뒤 약 1주일 후 열린 다학제 팀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의견을 나눈 뒤 환자에게 이런저런 수술 후 상태에 대한 설명과 질문을 듣고 대답하였고, 치료방침은 수술적 치료와 추가적인 방사선치료로 결정이 나고 신경외과와 협진수술 예정일까지 정하고 결론이 났다.

여러 과의 세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모든 질문에 답하고 치료방법에 대해 상의하는 다학제 진료는 환자의 병원 방문횟수를 현저히 감소시켜 번거로움을 많이 줄이고 진단과 검사, 수술의 일정 협의가 빠르고 타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상의하여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질 높은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환자의 진단, 치료과정이 현저히 짧아지고 혹 놓칠 수도 있는 주요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되고 의료진 역시 환자를 동시에 보며 환자의 여건을 이해하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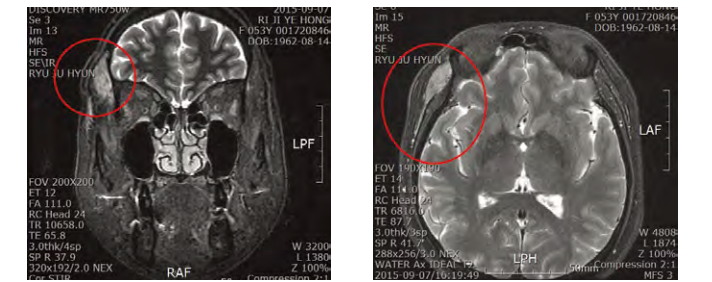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신경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을 방문하고 각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문진과 조사를 다시 하여 치료방법이 결정되기까지 긴 여정을 불안한 마음으로 다녔을 것이고 특히 말도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하였을 것이다. 다행히 통역을 대동한 다학제진료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고 환자는 본인의 심각성을 이는지 모르는지 아직은 밝은 얼굴이다.

늘 하는 수술이지만 항상 최면을 건대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젠 내 할 일이 남았다. 저 무지막지한 암 덩이를 제거하고 전두골이 제거되면 두개경뇌막이 노출되고 손바닥만한 피부와 근육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두개경막의 복구와 그 위 연부조직을 현미경을 이용한 외측상박 유리피관술이나 전외회피 유리피관술로 덮고 살려야 환자의 1차적인 치료가 끝나게 된다.

항상 하는 유리피관술이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전체적인 수술과정,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때의 처치방안, 수술 후 치료결과, 이후 환자의 반응들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다 잘 진행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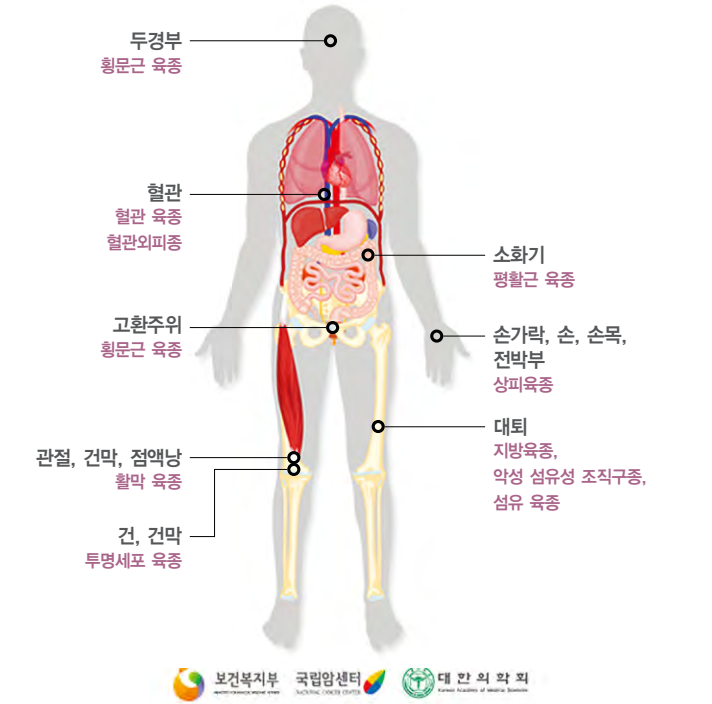
●문의 : 성형외과 ☎ 032-890-3870



전두골에 암의 침윤이 발견된 영상



연부조직의 육종 발생부위



매일 금연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금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담배 냄새도 끊으라는 배우자의 잔소리도 또 하루하루 피곤한 내 몸도 금연을 재촉하였지만 매일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습관으로 몇 차례 시도한 금연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배우자가 인하대병원에서 금연캠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신청을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의지가 약한 것이지 캠프에 입소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며 사양하였지만, 매일 한 갑 이상씩 담배를 30년 이상 피워온 저에게는 금연을 위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끊임없는 가족들의 설득으로 금연캠프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금연에 성공하면 100만 원을 준다며 응원하셨습니다. 아들, 딸에게는 꼭 금연에 성공해서 1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기로 약속했더니 안마도 해주고 응원했습니다.

처음 긴장되는 마음으로 캠프 시작 일주일 전, 캠프 사전 등록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진료 후 금연을 보조해주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캠프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 약에 대

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다음날부터 복용하였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평소보다 흡연 욕구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캠프에 입소하게 되었고 저의 예상과는 달리 캠프 프로그램이 금연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담배로 인해 망가져 가고 있는 내 몸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특히 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때는 다소 긴장되었었고, 같이 참여하신 분 중에서는 캠프의 건강검진을 통해 폐의 문제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의사 선생님들의 생생한 강의와 콩나물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였습니다. 흡연과 금연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집단심리상담 그리고 개별심리상담도 유익하였습니다. 또 담배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몰입활동으로 미술활동, 숲에서의 명상, 운동 프로그램 등은 금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소하기 전 가족들과 금연에 꼭 성공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렇게 4박 5

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는 캠프가 끝난 지금까지도 금연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형과 아우, 삼형제의 가족 모두가 모였는데 아들이 어머니께 “할머니, 아빠 금연했어요, 백만 원 주세요!” 하니 어머니 얼굴에 앗은 미소가 흘렸습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금연해서 좀 더 건강한 모습 보여 드릴게요. 형은 한술 더 떠서 “둘째가 금연한다! 다들 작은 아빠 금연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치자! 짹짹~ ‘금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몇 번을 시도 하다 실패한 경험 또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삶과 가족을 위하여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욕구가 있을 때마다 사탕을 넣고 물을 마시고, ‘정신 차려!’, ‘오늘만 피우지 말자.’ 3번씩 외치면서 꿀밤도 때립니다.

아직도 금연을 실천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의 금연캠프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정말 내 몸이 건강해 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금연캠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담배와 영원히 이별하기 위한 4박 5일!
의료진과 전문심리상담사, 상담간호사와 함께하는 **금연캠프!!**

- Q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란 무엇인가요?**
A 금연을 하기 원하지만, 의지만으로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성공에 도움을 드리는 4박 5일간 프로그램입니다.
- Q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왜 필요한가요?**
A 주변의 아무런 도움 없이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입니다. 니코틴 중독은 다른 마약제제보다 강력한 중독물질이며 흡연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중독 정도는 더욱 강해지고 이러한 강력한 중독성은 금연실천시 신체적 금단증상과 흡연 욕구를 유발하게 되므로, 금연에 의한 금단증상의 경우 금연 시작 3~5일이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금연상담, 의학적 치료, 운동·영양 등 건강 상담 등이 포함된 집중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되면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입니다.
- Q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의 참가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년 이상의 흡연경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금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흡연자이거나 혹은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인하대병원에서 진행되는 캠프는 사전 진료 및 상담, 필요한 관련 약물 복용 등에 동의하시는 분이면 참가 가능합니다. 인천금연지원센터에 연락 주시면 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사전 진료가 필요한가요?**
A 니코틴의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금연 실천 시 금단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중독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캠프 사전 진료를 통해 개인의 흡연경력과 현재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Q 캠프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A 4박 5일간 쾌적한 병실에 입원하여 진행되며 전문의의 진료와 건강검진(CT, 혈액, 소변, 폐기능 검사 등), 금연교육, 개별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과 맞춤형 영양상담, 여가교육, 운동프로그램과 명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Q 참가비는 얼마인가요?**
A 본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단, 때에 따라 개인이 복용하는 금연약물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Q 참가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팀(032-451-9024, 032-451-9025)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전화 상담 후 참가자 선정이 되면 금연캠프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금연캠프 참여자 후기
가족과 건강을 위한 금연실천 시작

글_ 정종열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1기



가을철에 유행하는 감염 질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적인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을은 높은 하늘에 화창한 날씨가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지만, 다른 계절에 잘 유행하지 않는 감염질환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_ 백지현 교수 / 감염내과



가을철에 열이 나는 경우 요로감염이나 폐렴 같은 비교적 흔한 감염질환들이 원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세 가지의 가을철 감염질환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적절한 예방수칙을 지키면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의 공통점은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 주로 머물러 있다가 우연히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 몸의 일부에만 국한된 감염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적인 감염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쯔쯔가무시병**,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병**이 모두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고, 전신적인 감염질환에 따르는 공통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철에 발열, 오한과 함께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감염질환들을 감별해야 할 진단의 후보에 함께 넣게 됩니다.

쯔쯔가무시병 털 진드기에 물려서 생기는 질환

최근 몇 년 사이에 ‘살인진드기’라는 자극적인 이름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면서 진드기에 물려서 생기는 SFTS라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이 널리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진드기와 관련된 감염질환 중 SFTS 보다 더 흔한 질환이 **쯔쯔가무시병**입니다. **쯔쯔가무시병**

은 ‘털 진드기’라는 진드기의 유충에 물려서 생기는 세균성 감염질환입니다. 털 진드기의 유충은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 동물을 물게 되는데 털진드기가 많이 사는 수풀이나 나무가 많은 지역을 사람이 지나갈 때 우연히 사람을 물게 되면, 털 진드기 유충 속에 있는 세균이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린 직후에는 티가 나지 않다가 1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열이 나면서 두통,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 발진은 얼굴과 몸통에서 시작돼서 팔다리로 번져가게 되는데, 병이 생긴 초기에는 발진이 아직 생기지 않았거나 발진이 생긴 후에 빠르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진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단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쯔쯔가무시병**에서 특징적으로 생기는 ‘괴사 딱지’입니다. 진드기유충에 처음 물린 자리가 처음에는 빨개지고 가운데에 물집이 생겼다가 물집이 터지고 남은 움푹 파인 자국 위로 1cm 정도 크기의 검은색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자국을 발견하면 **쯔쯔가무시병**의 진단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 괴사 딱지는 다라나 배 같이 잘 보이는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진드기 유충이 걸로 드러나있지 않은 부위도 잘 물기 때문에 겨드랑이나 속옷 안에 가려진 부위, 윗방 밑과 같이 피부가 접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괴사 딱지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이 유행하는 가을철에, 특히 성묘를 다녀오거나 밭



쯔쯔가무시병의 괴사딱지

일, 야영, 등산, 낚시 같은 야외 활동을 하고서 1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난 후에 열이 나면서 괴사 딱지나 발진, 다른 증상들이 같이 있으면 이런 임상소견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혈액검사로 진단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결과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는 혈액검사 결과 확인 전에 임상소견을 통한 진단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 낫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2주 정도 고열이 지속되다가 서서히 회복되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이 되어서 잘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고열은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떨어지게 되고 이후에 두통이나 복통, 메스꺼움 같은 다른 증상들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도 권태감이나 무기력증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해도 감염된 지역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드물게는 쇼크, 호흡 부전, 여러 장기의 기능 손상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없으므로 진드기 유충에 물리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행 시기인 가을철 특히, 늦가을에 위험지역인 나무나 풀숲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 등 위험지역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외활동 전에 긴 팔, 긴 바지 옷을 입고, 소매끝, 바지 밑단, 허리띠 부위를 잘 여미고, 이런 부위에 약국에서 파는 곤충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도움됩니다.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잘 세탁하고, 샤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쥐의 배설물 바이러스가 원인

신증후군 출혈열은 매년 4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과 다르게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질환인데 ‘등줄쥐’라는 이름을 가진 쥐의 소변이나 대변에 바이러스가 섞여 있다가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뚜렷하지 않은데 건조한 날씨에 쥐

의 소변이나 대변이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농부나 군인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발열과 출혈 증상, 신부전 즉 콩팥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한 소견입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에 2주에서 3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에 다른 가을철 감염질환처럼 발열, 두통, 근육통, 복통이 많이 생깁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경우가 많고, 등과 양쪽 허리 통증이 특징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늦가을에 야외활동을 피하고, 쥐의 배설물에 접촉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농촌 지역에서는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렙토스피라병 동물의 소변을 통해서 발생

렙토스피라병은, **쯔쯔가무시병**, **신증후군 출혈열**을 진단할 때 감염이 필요한 감염질환이지만, 최근 5년 동안은 매년 100명 이하로 집계되는 비교적 드문 감염질환입니다.

‘렙토스피라’라는 세균이 쥐나 다른 동물의 소변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될 때 **렙토스피라병**이 발생합니다. 오염된 물이 상처가 있는 피부나 장시간 물에 잠겨서 불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코, 눈의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벼 베기 작업을 하는 중이나 캠핑이나 수영, 낚시 같은 여가활동을 하는 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되면 5일에서 2주 정도의 잠복기 후에 독감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되고, 그 이후의 경과에는 아주 다양해서, 감기처럼 앓고 끝나는 환자부터 이후에 황달이나 콩팥기능 이상, 폐출혈 같은 중증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까지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환경을 깨끗이 해서 들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필요하겠고 들쥐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에는 긴 바지, 장갑, 장화 같은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증질환이 될 수 있는 가을철 감염 질환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드기 유충에 물릴 수 있는 환경이나, 쥐의 소변이나 대변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최대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셔서, 건강하게 가을철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內



洞

시간이 공간을, 공간이 시간을 이어주며 곱게 늙은 동네



한때 '안골말'이라고 불리던 내동 언덕을 오르내리다 보면 골목 어귀에서 파란 눈의 선교사와 구한말 조선의 관리들을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 언덕 마루턱에는 백범 김구의 정신이 흐른다. 그는 이곳에서 두 번의 옥고를 치르며 옥중에서 신서적을 통해 새로운 문명에 눈을 뜬다. 인천 축항에서의 강제노역과 인천민들의 구명 운동 등을 통해 '의열 청년' 김창수는 '독립운동가' 김구로 다시 태어난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인천을 '의미심장한 역사적 장소' 라고 말했다.

글·사진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살해했다. 이른바 치하포사건이다. 이 일로 5월 13일 사형 선고를 받고 해주 감옥에 수감됐다가 당시 가장 힘든 감옥이라고 알려진 내리(내동)의 인천감영(인천감리서)으로 7월 26일 압송되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바로 직전 고종 황제의 사형 집행 정지령이 내려지고 무기수로 감형되었다. 어머니 곽낙원 여사는 아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내리로 왔다. 인천항 내의 유명한 물상 객주집에 기숙하면서 밥 짓는 일과 옷 만드는 일을 거들며 아들에게 하루 세끼 감옥에 밥 한 그릇씩을 갖다 주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죄인의 불기 맞는 비명소리가 울렸던 인천감리서

백범이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른 인천감리서는 조선 정부가 1883년 내동 83번지 마루턱에 설치하였다. 개항장 제물포의 조계지 관리를 비롯해 외국인 입출항의 외교 업무와 무역·관세의 통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리(監理)를 파견했다. 감리아문 청사는 한옥 단층 건물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옥에 유리창이 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은 커다란 삼문(三門)으로 열려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감리서에 감옥이 있었다는 점이다. 포승줄에 묶인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고 죄인이 불기 맞는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인근 민가에 들렸다고 한다. 1895년 관립외국어학교가 인천감리서 안에서 개교했다. 첫 졸업식에는 9명, 2회 때는 단 한명만 졸업했다. 이후 공립상업학교로 개편되고 1922년 현재의 송림초교 터로 이전하게 되는데 후에 이 학교가 바로 인천고가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언덕에 아파트를 세운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한진은 1996년 경 이 건물을 헐고 '인천신포스카이다워'라는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아파트를 짓는다.

거대한 성채와 같은 이 아파트는 응봉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과 월미도를 휘돌아 올라오는 바닷바람을 막으며 갈라놓았다. 현재 옛 감리서 터에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나는 38 이남만이라도 돌아보리라하고 제일 먼저 인천에 갔다. 인천은 내 인생에 뜻 깊은 곳이다. 스무두 살에 인천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스무 세 살에 탈옥 도주하였고 마흔 한 살에 17년 징역수로 다시 이 감옥에 이수되었다. 저 축항에는 내 피땀이 배어 있는 것이다. 옥중에 있는 이 불효자를 위해 어머니가 걸으셨을 길에는 그 눈물 흔적이 남아 있는 듯하여 마흔 아홉해 전 기억이 어제인 듯 새롭다.' '인천 감옥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동안, 인천 개항장을 통해 유입된 신문물을 익히며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했다' 백범 일지 중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내동

백범 김구는 광복 후 고국에 돌아와 지방 순회를 할 때 인천을 제일 먼저 찾았다. 인천과는 어떠한 인연이 있길래 그는 서둘러 인천으로 발걸음을 했을까. 1896년 명성황후 시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한 그는 일본군 중위 쓰치다를



내동교회 마당에 있는 고요한 주교(좌)와 랜디스 박사(우)의 흉상.

내동교회를 얘기하면서 의사 랜디스를 빼놓을 수 없다.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던 랜디스는 장티푸스에 걸려 32세 나이에 요절했다. 교회 뜰을 거닐다 보면 갖가지 표지석과 기념비 그리고 흉상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 안내문을 하나하나 읽다보면 구한말 역사의 한 페이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내동교회 언덕길을 내려오면 붉은 서양식 주택이 하나 나온다. 동네 사람들이 흔히 ‘내동 벽돌집’으로 부르는 유향렬 저택이다. 유향렬은 한국 최초의 도선사(導船士)다. 그는 바다 사나이이다. 광복 후 일본인 도선사들이 모두 떠났을 때 구호물자를 실은 선박들을 홀로 인천항으로 안내했다.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장을 연 내리교회와 인천우선회사

현재 한국 최초 교회는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 목사가 세운 정동 장로교회(현 새문안교회)로 알려져 있다. 1922년 발간한 ‘인천내리교회역사’에는 내리교회가 정동장로교회보다 2년 여 앞선 1885년 처음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돼 있다.

내리교회는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장을 연 교회다. 그 현장이 교회 아래쪽에 있다. 돈벼어천가 음식점 옆 골목으로 들어오면 주차장이 나오는데 그 부근에 ‘동서개발회사’라는 간판을 단 하와이 이민사업 대행사가 있었다. 회사 대표는 미국인 테슬러였다. 그는 전국의 큰 도시와 항구에 이민 모집방(榜)을 붙였다.

이민선이 떠나는 날 제물포 부두에는 세찬 바닷바람이 불어 전송나온 사람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희망을 안고 떠나는 이민이었지만 첫 이민선이 떠난 제물포항은 슬픔 그 자체였다. 그때 항구에는 3개의 바다가 생겼다고 한다. 땅에서 환송하는 사람들의 눈물바다, 또 하나는 배 위 사람들의 울음바다, 그리고 제물포항의 통곡바다였다. 그들은 이틀간의 항해 끝에 일본 나가사키항에 도착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장이다.

내동과 인접한 중앙동은 개항기 신문물이 유입된 동네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이 동네에 이국적인 풍경의 조각들을 곳곳에 남겼다. 빨간색 벽돌창고와 적산가옥이 줄지어 있는 등 현재의 풍경이 혼재되어 있다. 지난 2009년, 100년 세월을 담은 창고와 사무실 등이 예술 창작 공간으로 트랜스폼 되었다. 시간이 공간을, 공간이 시간을 연결하며 창작 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오래된 것과 새것의 시간차를 오히려 즐기며 일본식 적산가옥과 서양식 건물의 부조화를 일부러 타내며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아트플랫폼 자료관으로 쓰임새가 바뀌게 된 인천우선회사(시 등록문화재 248호)는 건물이 지닌 시간성의 발견을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 리모델링 작업 중 이 건물이 국내에 현존하는 근대건축물 가운데 사무소 건축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품은 화선장과 신포공영주차장

발걸음을 신포동 쪽으로 향한다. 한때 ‘인천의 명동’으로 불렸던 이 동네에 ‘화선장’이란 고급 음식점이 있었다. 이 음식점은 연합군 포로의 탈출과 얽힌 드라마틱한 이야기 하나를 품고 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체스터 존슨 소령은 1942년 여름 필리핀 전투에 참전했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근 3년 동안 남양군도의 여러 섬으로 끌려 다니다가 현재의 인천신포초교터에 있던 외국인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제 2부두 축조 공사장과 지하도 공사장으로 끌려 다니며 많은 혹사를 당했다. 여름 어느날 강제 노동에 끌려 나가던 그는 동료 세 사람과 함께 탈출했다.

지리를 전혀 몰랐던 그들이 한나절 빙빙 돌다가 간 곳은 시내 한복판, 지금의 신포동이었다. 하필이면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음식점 ‘성금(成金) 앞’이었다. 피곤함과 굶주림에 무조건 이 음식점으로 뛰어 들어가 ‘헝그리(배고프다)’를 연발했다. 마침 그를 본 사람은 조선인 종업원 김진원이었다. 그는 후에 적산 상점 성금을 인수해 화선장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다.

김 씨는 재빨리 그들을 구석방에 숨기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은 밥을 얻어먹은 후 사위를 하다 다시 붙잡혔다. 이후 광복이 되고 존슨 소령은 인천 포로수용소에서 구출되었다. 20여 년이 흐른 후 그는 주한 미군 사단장(소장)으로 부임했다. 존슨 7사단장은 김진원 씨를 찾았고 둘은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화선장은 이후 승승장구하는 고급 음식점으로 발전했다.

옛 화선장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신포공영주차장이 나온다. 이곳에 오면 오페라의 음률이 귓가에 맴돈다. ‘나비 부인(Madame Butterfly)’은 푸치니가 작곡한 2막 3장의 오페라이다.

재능대학 손장원 교수는 ‘나비 부인’의 모델이 된 아마무라 쓰루의 딸 글로버 하나가 인천으로 시집와 살다가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고 밝혔다.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 글로버는 일본에서 사업하며 이혼녀 아마무라 쓰루와 결혼한다. 그녀는 나비가 수놓아져 있는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고 해 ‘나비 부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둘 사이에 1남 1녀가 태어났는데, 그 딸이 글로버 하나다. 글로버 하나의 남편 윌터 베넷은 인천으로 건너와 베넷상사(광창양행)를 설립해 사업을 벌였다. 그 자리가 바로 현재 신포공영주차장 터다. 이후 그녀는 1938년까지 살다가 70세의 나이로 사망해 현재 청학동 외국인 묘지에 묻혀있다.

그때, 이곳 내동

한진그룹 창업터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은 1945년 중구 해안동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 트럭 한 대를 갖고 한진상사를 설립했다. 상호였던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줄인 말로 한국의 진보를 꿈꾼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6·25 전쟁이 일어나 그동안 이룩한 것을 모두 버리고 1953년 다시 인천에 돌아와 회사 재건에 힘을 쏟았고 이후 육해공 분야에 독보적인 회사가 되었다. 한진이 처음 창업한 곳은 인천일보 윤전실 옆 건물과 길 건너 옛 인일철공소 자리로 추정된다.



1 옛 내리교회 예배당 2 이민선 갤러리 3 아트플랫폼 4 옛 화선장 건물

한국 최초로 세워진 성공회 성당 내동교회

아파트 바로 옆에 자유공원과 신포동을 이어주는 언덕길 이 나있다. 적당히 경사진 산자락에는 이국풍의 예배당과 세월을 품은 주택들이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감히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도심의 언덕길이라고 얘기한다면 ‘인천애(愛)’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핀잔 들을까. 이 길은 성공회 내동교회로 이어진다. 1891년 한국 최초로 인성여고 부근에 세워진 성공회 내동교회는 1956년 현재의 위치한 성누가병원 부지에 교회를 다시 지었다. 내동교회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영국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그 유가족들이 모금해 건축한, 일종의 전쟁 기념성당이다. 50년대 말까지 교회 안뜰에는 대공 기관포가 있었다고 한다.

인천정미소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에 따르면 인천정미소는 1889년 3월에 설립되었다. 당시의 풍경은 기선이 제물포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길에 닿는 것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인천항의 산언덕 아니면 맹렬하게 검은 연기를 공중에 뿜어내는 인천정미소의 굴뚝이었다고 한다. 인천정미소는 여러 대의 증기기관을 갖추고 밤낮 없이 작업을 하였으며, 개업 이후 정미한 쌀이 수만 석을 넘었다. 현재 현존하는 것은 굴뚝과 부속 건물이다. 현재 부속 건물은 개인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곡과 함께 더 가까이 다가온 가을 남자

“빠른 템포의 ‘목숨을 건다’로 올드함을 벗고 변신할까 했는데 그게 내가 아닌 것 같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듣고 있나요’가 제 스타일인가 봐요. 하하하.”

‘듣고 있나요’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애절한 발라드이다. 데뷔 33년, 7년 만의 신곡발표이지만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만큼 마니아층이 확실한 그가. 자신이 운영하는 중식당 ‘리하’에서의 공연이 9년째 계속되는 것처럼 ‘박강성식 콘서트’는 팬과 가까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딱 적정한 선까지의 유머로 팔짱 낀 관객을 릴렉스 시켜주고 교감하며 말하듯이 공연하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한때 입만 열면 2시간은 포복절도할 정도였다는 그의 입담도 ‘박강성식 콘서트’의 재미이다.

내 노래를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고마운 사람이라면

몇 년 전 암 투병을 하던 자신의 팬, 지금은 고인이 된 이은영 씨 이야기를 꺼내자 또 목이 메는 그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의 소원은 ‘박강성 노래’를 한 번만 들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EBS로부터 이런 사연을 들은 박강성 씨는 암 병동 복도에서 마이크도 없이 그녀만을 위해 공연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내 노래 듣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 내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하나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병원 복도 공연에서 6, 7살 되어 보이는 두 아이의 눈망울을 기억하고 있던 그는 나중에 방송을 보게 되었다. 백색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은 채 ‘엄마, 엄마’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문밖에 있는 그대’, ‘장난감 병정’, ‘내일을 기다려’ 등 감성 짙은 발라드곡은 가수 박강성의 대표곡이다. 라이브의 황제답게 곳곳에서 팬들과 만나고 있던 그가 오랜만에 록을 접목한 ‘목숨을 건다’와 발라드 ‘듣고 있나요’를 담은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표하였다. 팬과 가까운 곳에서 삶을 이야기하며 노래하고 싶은 가을 문턱을 넘어온 남자, 가수 박강성을 만나보았다.

내가 노래를 하는 이유

누군가에게 내가 고마운 사람,
작은 위안이 된다면

에디터 이정희

“제가 저 스토리를 다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모두 공감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 내가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에 또 다른 행복을 찾는 그다.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 힐링 공연을 할 때면 자신의 노래가 지친 일상 속에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간절함으로 담아낸다.

지독하게 아팠던 외로움에 대한 기억

결혼 전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건 단연 목소리와 기타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일주일에 2번은 기절할 만큼 술을 마실 때가 있던 그다.

“전 술자리에서 전도하기도 했어요. 인생이 힘들 때 마시는 거거든요. 얼큰한 상태에서는 감정이 격해 살짝 건드리면 돼요. 건드리는 거, 그거 특별한 거 아니고 공감이에요. 제가 지나온 흔적을 그대로 사는 상대를 보니까 ‘너 힘들겠다, 나도 그랬다’ 하면서 그대로 공감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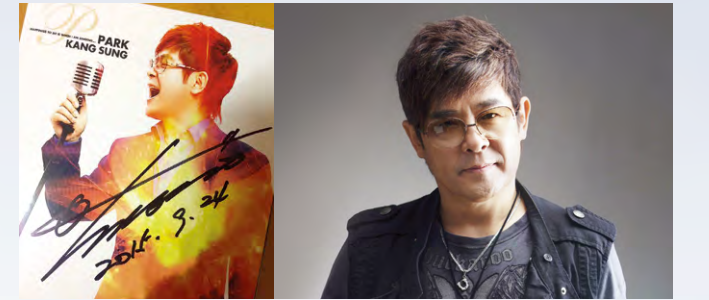
‘공감, 들어주는 거에 대해 말하며 박강성 씨는 지독하게 아팠던 외로움을 떠올린다.

집 밖으로 나가는 싫고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다. 지독한 외로움을 술로 달래던 그에게 이는 의사가 술 말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공황장애 직전 상태라고 했단다.

이때 그의 외로움을 만져준 인연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자신의 팬이었던 지금의 아내이다.

고통 참는 운동 싫어하는 그가 말하는 웰빙

‘웰빙이란?’을 묻자 한마디로 ‘과유불급, 모자라는 것이 낫고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운동하는 거 말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란다. 심한 감기몸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처럼소한 일상에서 건강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그는 스포츠 마니아다. 요즘은 배드민턴 하다 발목이 삐끗해서 3개월 동안 못하고 있어서 참 속상하단다.



신곡을 담은 싱글앨범 노래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 은근 스포츠 마니아이다.!

“제 나이에 운동을 안 하면 체력이 안 돼서 노래를 못해요. 아직 애들도 어린데(웃음).....지구력 운동은 1주일에 2~3번은 꼭 하죠.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운동이 있어요. 4개 종목은 한 세트로 묶어서 5세트 하면 쓰러져요. 하하하.”

라이브 황제인 그에게 체력은 곧 노래를 부르기 위한 기본이었다. 복싱도 한 10년 했고 거의 모든 레저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는 패러글라이딩 자격증도 있단다.

그에게 노래란?, 그대에겐 노래를!

콘서트 때면 2곡 정도는 꼭 부른다는 제즈를 들으면 지친 자신도 위로 받는다고 한다. 또 사진 찍기에 빠진 그는 ‘사람 표정’ 찍기를 좋아한다.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상상할 수 있게 표현하는 작품 세계를 말하는 그다.

9년째 1달에 1번 열리는 ‘리하’에서의 공연은 참 뽀족하고 노래 부르기 제일 두려운 자리다. 팬들과 가장 가까워서 인상 쓰고 침 튀는 거 세세하게 드러나는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쉽지 않다고 고백(?)한다.

오늘도 또 내일도 그가 콘서트를 고집하는 건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며 노래가 주고받는 위안 때문은 아닐까?

크고 작은 규모, 그런 사소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된다면 ‘가수 박강성’은 우리 옆에서 ‘노래 부르기’를 멈추지 않고 희망을 나누며 행복으로 설레리라.

맥주에도 스타일이 있다! ‘맥주 철학’을 한 모금 더한 크래프트 비어

수제 맥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제가 되고 있다.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맥주 시장은 급성장했고 다양한 크래프트 비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이 마시고 취하는 문화보다는 진정한 맛을 알아가는 음주 문화로 변하고 있는 것도 크게 한몫을 하는 듯하다. 메뉴판을 보면 맥주 이름이 널널하다. 익숙하던 브랜드의 맥주가 아니다. 음악에만 장르가 있는 게 아니라 맥주에도 스타일이 있다.

글_ 편집부



크래프트 비어란?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이 자체 개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든 맥주. ‘수제 맥주’로도 불린다. 과일 향이 나고 홉의 쓴맛이 짙게 배어 나오는 등 각기 독특한 풍미를 지녔다. 수많은 맥주 제조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맛이 특징이다.

가장 맛있는 맥주의 첫 모금이 결정되는 4가지 요모함

늘 같은 맛의 브랜드 맥주와는 다르게, 수제 맥주는 주재료인 홉과 몰트의 조화, 그리고 만들 때마다 첫맛과 끝맛 역시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난다. 저마다 다른 무게감과 향기를 가진 맥주이다.

맥아 - 달콤함과 색깔 결정 맥주의 재료 중 첫 번째는 보리다. 그 가운데서도 싹튼 보리(맥아 = 몰트)가 기본이다. 맥아는 맥주의 달콤한 맛과 색깔을 결정한다.

홉(hop) - 쓴맛으로 개성 살려 맥아가 맥주의 단맛을 좌우한다면, 홉은 맥주의 쓴맛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다. 맥아의 달콤함을 상쇄시켜 맛의 균형을 잡아준다. 어떤 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맥주의 개성이 달라진다. 한 가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홉을 섞기도 한

다. 또한 생산지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의 개성이 아주 다르다.

효모 - 맥주의 영혼을 살리다 맥주는 발효주다. 효모는 자연 야생 효모, 상면발효 효모(에일리스트), 하면발효 효모(라거리스트)가 있다. 효모와 발효는 관계가 깊고 이는 맥주 스타일을 크게 구분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 세계 맥주는 자연발효 맥주, 에일 맥주, 라거 맥주로 구분된다. 자연발효 맥주는 그리 많지 않은데 현재는 벨기에의 ‘람빅’ 뿐이다.

물 - 맥주의 95% 차지 세 가지 재료만큼, 맥주 맛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물이다. 물은 맥주의 95%를 차지한다. 물맛이 좋아야 맛 좋은 맥주가 나온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미네랄배합이 인위적으로 가능해서 물에 대한 의존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에일 리스트(상면발효) VS 라거 리스트(하면발효)

맥주는 발효방식에 따라 상면발효인 에일 리스트와 하면발효인 라거 리스트 나뉜다.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맥주들 대부분이 라거 맥주에 속한다.

라거 맥주가 청량감이 강한데 반해 에일 맥주는 짙은 향과 쓴맛이 특징이다. 아일랜드 기네스, 벨기에 호기든, 영국 포터 등이 대표 제품이다. 유럽의 하우스 맥주도 대부분 에일 맥주다.

요즘 대세는 역시 ‘IPA(Indian Pale Ale)’다. 상면발효 맥주에 해당하는 에일 맥주인 IPA는 한국의 수제 맥주 열풍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인기가 많다. IPA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19세기 말 탄생했다. 당시 영국인들이 인도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적도를 두 번 통과해야 했다. 인도에서도 맥주를 마시려면 방부제 효과가 있는 홉을 다량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IPA는 강렬한 홉 향과 쓴 뒷맛을 자랑한다.

효모 & 발효에 따른 맥주 구분

	에일 리스트(상면발효 맥주)	라거 리스트(하면발효 맥주)
방식	‘뜨는 성질’이 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라는 효모로 발효시킨 맥주	가라앉는 성질이 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카를스베르겐시스’라는 효모로 발효시킨 맥주
홉의 양	농도가 높다	가벼운 바디감
색	라거 맥주와 구별되는 진한 색	연한 노란색
도수	알콜도수가 높은 게 특징	도수 낮음
탄산	적다	탄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툭 쏘는 탄산과 맑은 청량감
향	과일 향이나 꽃향기와 같은 다채로운 향, 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풍미가 고스스롭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과 향
	영국의 에일 맥주와 포터 등이 있다.	우리나라 캔맥주는 모두 라거 맥주 범주

수제 맥주의 열풍, 뜨는 에일 맥주

에일 맥주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맥주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국의 포터, 아일랜드의 기네스와 스타우트, 벨기에의 호기든, 독일의 바이스비어·퀵쉬 등이 있다.

페일 에일 영국식 맥주로서 석탄으로 만든 연료로 구운 담색 맥아로 처음 만들어졌다.

에일 맥주 중 가장 인기 있고 대중화된 맥주 맑은 색을 가지고 약간의 탄산을 가지며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페일에일은 구운 맥아로 만들어 쓴맛이 진하게 난다. 짹짹한 맛이 난다. IPA(인디아 페일 에일)와 포터는 목직한 맛이 난다. 맛도 향도 강하다

인디아 페일 에일(Indian Pale Ale) 줄여서 IPA라고도 불리는 인디아 페일 에일은 강한 향과 맛을 자랑해 요즘 인기가 많은 에일이다. 제국주의 시절,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식민지인 인도로 8개월간 항해할 때 맥주를 보관하기 위해 홉을 많이 넣고 알코올 도수를 높여 만든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IPA는 쓴맛과 단맛이 강하게 나고 도수

도 높은 편이다. ‘아이피에이’라고 흔히 부른다.

브라운 페일 에일 페일 에일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에일이다. 검은 맥아와 갈색 맥아로 만들어지며 북부, 남부에 따라 맛이 다르다. 북부는 짙고 쓴 풍미를 가지며 남부는 비교적 열으면서도 강한 맛을 가진다. 남부 브라운 에일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마니아층을 견비해 정통성을 자랑한다.

골든에일 역시 과일 향을 낸다. 필스너와 바이스에 비해 알코올 도수는 높지만 그만큼 단맛과 쓴맛이 강하게 난다



‘로젠브로이’의 크래프트 비어

Tip in Beer

과거 맥주 2~3종류에서 선택하던 때와 달리 마트만 가도 다양한 맥주 종류에 선택 고르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아래의 맥주 기호를 참고한다면 큰 실패는 없을 듯하다.

ABV% (Alcohol by Volume)

그 맥주, 도수가 얼마야?

알코올의 도수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주류가 그렇듯 가장 널리 통용되는 맥주 관련 지표이며, 맥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

IBU (International Bittering Units)

쓴맛을 피하고 싶다면 꼭 체크하도록!

맥주의 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홉에서 추출된 이소알파산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 홉이 가진 알파산(Alpha Acid)과 홉을 어느 정도 비율로 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숫자가 커질수록 쓴 맛의 정도가 높다. IBU는 단순히 ‘쓴맛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수치이지 홉 향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즉, IBU 수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홉 향의 풍미가 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SRM (Standard Reference Method)

맥주의 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진한 색이다.

예를 들어 SRM 3정도면 황금색, 10이 넘어간다면 갈색 계열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라거 맥주는 IBU가 10~20사이이고 에일 맥주는 15~20 이상으로 쓴맛을 강조한다. 그리고 맥주 색깔이 진할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맥주의 색깔과 도수는 관계없다는 것도 알아두고 나의 입맛에 맞고 좋아하는 색깔의 맥주를 선택해보자.

Call Me, Tell Me, With ME !!!

환자안전 함께하면 더 안전해집니다!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실천해 의료진과 환자가 안전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고자 우리 인하대병원에서는 해마다 '환자안전의 날'을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_ 신정애 / QI팀장

내원객 대상 'speak up campaign' 시행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중요하므로 올해는 내원객 대상 'speak up campaign'을 시행하였습니다.

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진료과정마다 설명을 자세히 듣고 치료 결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인증 받은 우리 인하대병원과 같이 안전한 병원 선택이 중요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 환자안전과 질 향상

을 위해 내원객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기회를 가져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병원 보직자 라운딩을 통해 직원이 생각하는 환자안전 이슈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의사소통하고 개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인사 초청 특강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대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제출한 환자안전 포스터, 동영상, 교육자료 등 공모한 작품에 대해 전시회를 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포상에 격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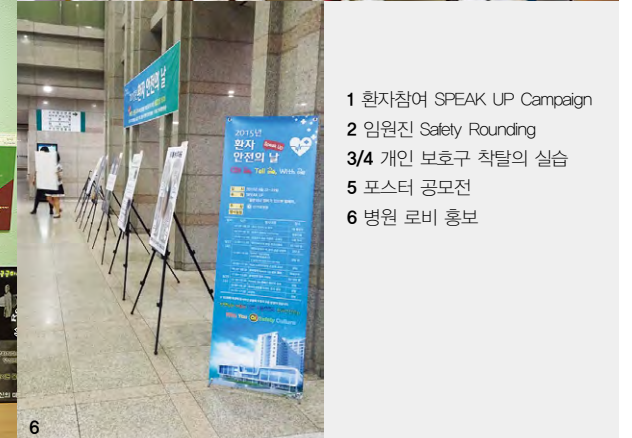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로 감염관리가 환자안전에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므로 이를 홍보 및 교육하고자 손 위생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손배양 체험과 신종 감염병 대비 Level D 개인 보호구의 사용법 착탈의 실습을 진행하여 더욱 안전한 탈의 방법을 습득하도록 체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방법은 개인 보호구 착용 후 형광로선을 도포하고 개인 보호구 탈의 후 LED 라이트로 형광로선 오염도를 측정하여 개인 보호구 제거 시 본인 몸에 오염이 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환자안전이 목표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터

올해로 8번째를 맞는 환자안전의 날 행사는 환자안전 활동 현황과 캠페인 등 병원 내 주요 환자안전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똑똑해져야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기본인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JCI 인증 획득으로 정착된 인하대병원의 환자 안전문화가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어 환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실현하고자 결의를 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국제적 수준의 환자안전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병원 내 직원들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 등 환자안전에 관한 환자안전문화 의식 향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환자참여 SPEAK UP Campaign
- 2 임원진 Safety Rounding
- 3/4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
- 5 포스터 공모전
- 6 병원 로비 홍보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가 앞장선다!!

글_유미애 파트장 / CS팀

인하대병원에서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든 직원 행복을 위한 활동을 지난 2014년부터 시도했으며 올해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중 2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고객이 행복한 병원’, 바로 인하대병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에 대한 우리 병원 최상의 목표이다. 하지만 고객이 행복해지기 전에 앞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만족’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은 헤스켓(J.S. Heskett)과 W.E 새서(W.E.Sasser) 주장하는 ‘서비스 수익 체인’ 모델을 통해 알 수 있다.

서비스 수익 체인

직원 만족도 → 직원 충성도 → 서비스 품질/생산성 → 서비스 가치 → 고객만족도 → 고객충성도 → 수익률/성장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이것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만족도까지 향상시키는 선순환 고리 구축, ‘직원 행복’이 우선되면 ‘고객 행복’까지 향상한다는 선순환 고리구축인 것이다.



직장행복 아카데미 - 배워야 산다,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인천 남부교육지청과 연계한 찾아오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교감하기’라는 주제로 4회에 걸쳐 시행했다.

직장인 이전에 누군가의 부모인 ‘OO 엄마, OO 아빠’, 직장에서, 가정에서 000의 엄마 아빠는 행복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의 중요 내용은 아이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잘할 때 칭찬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언제나 나를 웃으며 바라봐 주는 부모 얼굴’이라고 합니다.

참석한 직원교육생들은 내 아이가 웃는 얼굴일까? 말을 잘하는 아이일까?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일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부모일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강사의 충고에 모두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카데미 참석 후 참가자들 대다수가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준비하며 더욱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보내주시는 교육 후기를 실고자 한다.



교육후기

“아이와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한없이 미안한...”
“강의를 듣고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아이의 얼굴을 보고 웃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웃어 주더라고요! 상위 0.1%의 아이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여유와 유머, 웃음이 참 부럽더라고요. 난 왜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했을까?”
“감사의 반대말이 기대라니...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부담되었던 걸 몰랐어요.”
“주변 친구가 함께 들을 수 없느냐는 데 가능할까요?”
* 물론 병원 직원이 아니더라도 교육 참가 가능합니다~^^



함께 행복해지기 프로그램- 부서간의 만남의 장(Harmony)

직장생활이 행복하려면 업무상 연결되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관계가 그 시작일 것이다.

부서 간 만남은 원하는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소통, 감성, 힐링’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음식을 나누면서 많은 대화와 친목으로 그동안 서운했던 점이나 어색함을 깨고 화합하는 팀으로 거듭나는 활동이다

이번 부서 간 만남은 동9병동의 프리프로즈로 서9병동의 경력 간호사 10명이 함께 한 시간이었다. 감성과 소통 코칭 후 음식을 함께 하며 마음속 이야기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직원 행복 프로젝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하대병원 고객만족팀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 ‘모두가 행복해 질 때까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부서 간 만남의 장에 참가한 동 9병동 손지영 간호사가 생생한 후기를 실는다.



↑ 감성/소통 코칭 후 맛있는 음식과 진솔한 대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ICE Breaking “친진스러운 아이들처럼 밝게 웃는 모습 짱~”

참가후기

“업무가 아닌 개인을 알아가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지영 간호사(동9병동)

저는 CS(고객 만족)팀에 서 9 병동과의 만남의 장을 신청하였고, CS팀의 주도 하에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맞은편에서 서로 근무하면서 얼굴은 익히 봐서 알고 있었지만, 업무를 위한 대화 아닌 개인을 알아가는 감성 의사소통과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즐겁게 신체 활동을 하는 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간 느끼지 못했던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차분하게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도 가지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도 느꼈습니다. CS팀에서 지원받은 식사비로 저녁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9층 병동 간호사간 친목 도모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서 간 만남의 장 이후, 9층 동9 병동과 서 9병동은 전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 속에 하루하루 근무하고 있답니다. 혹시 타 부서와 갈등이 있거나,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신 부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없이 CS팀 게시판에 ‘부서 간 만남의 장’ 문을 두드리세요. 분명히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 ‘살맛나는 직장, 친절한 병원’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인하대병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모두들 힘내세요!!!

건강을 다시 찾게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전국이 메르스 사태로 긴장 분위기에서 약간의 진정상태로 접어들 무렵, 평생을 백령도에서 지내오신 이모님에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급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약간의 고혈압만 있을 뿐, 칠십 후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사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건강에 자신 있어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백령도, 해경 헬기로 이송

의료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시간이 나면 육지로 나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지 하는 마음만 먹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뇌 이상 증세로 인해 사지가 뒤틀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일본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편은 4~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경 헬기의 도움으로 1시간여 만에 백령도에서 인하대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었습니다. 인하대병원에 도착하자 신속한 검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병원 업무가 끝난 상황이었지만, 시술은 빠른 시간 내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님 집도로 신속한 수술 진행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님 집도하에 무사히 혈중제거 시술을 마치고, 드레인(뇌에 고인 피를 지속해서 빼내는) 장치를 달고 집중치료실로 옮겨 지셨습니다.

집중치료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며 하루를 머무시다가, 다음날 오후 다소

천공폐쇄배액술을 집도하신 김은영 교수님의 인상이 좋아 마음이 편했다고 꼭 전해달라는 김선매 님. 퇴원 전 인증사진도 찰칵~ 두 분의 미소가 훈훈합니다.



안정된 상태를 보이셔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졌고 여러 사람의 보살핌 속에 1주일 만에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백령도에서 병원이송, 그리고 수술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잘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는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쾌차하신 이모님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헬기 안에서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을 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철렁한 가슴을 쓸어내린 이모님은 잔잔한 미소로 늘 회진해 주시는 김은영 교수님과 인증사진도 찍었다 하시면서, 인상이 좋아 보이셔서 무척 마음이 편했다는 말씀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찾은 이모님을 보니 새삼 고마운 마음이 더 듭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백령도이지만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을 볼 때 늘 불안한 마음이었거든요. 다시 건강을 찾게 도와주신 김은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메르스라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해 준 인하대병원 직원 모두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모님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은 메르스가 진정상태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드나드는 곳곳에서 빈틈없이 체크하는 모습에 더욱 믿음이 갑니다.

김은영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병원 직원 여러분! 백령도를 방문하실 일 있으면 연락주시겠어요?~ 그뻘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모님 건강한 모습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이 글은 지난 6월 22일 백령도에서 경막하 출혈로 헬기 이송 후 혈중제거 시술을 받고 완치되어 퇴원하신 김선매 환자 조카부인 김제옥 씨께서 홍보실로 보내주셨습니다. 백령도에는 김제옥 씨 시댁 식구와 사이모님 등 여러 친지분이 함께 거주하셔서 유독 정이 돈독하다고 하시네요. 김선매 이모님을 비롯하여 김제옥 씨 일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퇴원 전 김선매 이모님께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김은영 교수님



이런저런 섬 생활의 고단함을 덤으로 들으며, 잠시나마 연평도 주민의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진료하며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다. 그러나 배 시간에 맞춰 현장 정리를 하면서 더 헤드릴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또 슬몃 올라온다. 연평도 사건의 공포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주민을 뒤로 해야 하는 마음은 먹먹하기만 하다. 글_ 채희영 / 진단검사의학과 사진_ 김시현 과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만감이 교차하는 연평도 의료봉사 우리는 정말 멋진 드림팀!

화창한 가을날 연안부두에서 인천해경 공기부양 고속정을 타고 우리는 목적지인 연평도로 향했다.

처음 타본 공기부양정은 우리들의 우려와는 달리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2시간여 만에 연평도 해안 갯벌에 도착하여 물이 없는 갯벌을 자동차처럼 달려 안전하게 모래사장에 우리를 내려준다. 배웅 나온 연평연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진료소가 차려질 제 1대피소로 이동하여 진료접수처, 진료소 2곳, 약국, 채혈실, 검사실, 금연상담실 등을 마련하였다.

연평도가 꽃게 철인 관계로 주민들 대부분이 작업장에 나가 진료소를 찾는 주민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지 관계자의 말에 내심 우리 봉사단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으나,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진료소에 50여 분의 마을 주민이 찾아 주셔서 우리의 우려를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로 꾸러진 의료진은 진료마감인 저녁 6시까지 열심히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번 봉사단에 처음 참여하는 진단검사팀에서는 혈당, 간염, 위염, 말라리아, 결핵, 소변 각종 암 검사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알려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진료를 마친 후 관광해설사 안내로 한 시간가량 연평도 "안보관광"을 하게 되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폐허가 된 3채의 주택과 발견된 포탄들을 보았다. 섬 주민들의 당시 공포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절절히 느끼면서 서로의 눈길을 통해 만감이 교차함을 느꼈다. 둘째 날 아침, 오후에는 꽃게잡이 나간 배들이 돌아와 작업해야 하므로 오전밖에 시간이 없다며 진료 시작 전인 8시부터 대기하시는 주민들을 만났다.

이런저런 섬 생활의 고단함을 덤으로 들으며 잠시나마 이 분들의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11시 진료마감까지 40여 주민의 진료를 하며 바쁘게 보냈다. 더 헤드릴 수 없다는 안타까움 속에 12시 정기 여객선을 타야해서 현장을 정리하고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배에 올랐다.

1박 2일의 짧지만 알찼던, 봉사의 참기분을 알게 해줬던, 그렇지만 뭔가가 아쉬웠던 연평도 도서 지역 의료봉사에 참여해 주신 김명옥 교수님, 박정훈 선생님, 박성숙, 김잔디 간호사, 조래정 약사, 김철민 팀장... 우리는 정말 멋진 드림팀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큰 눈과 수백 명의 박수

두려움에서 환자를 위한 마음과 사명감으로!!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기에 가능한 봉사였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교수님 및 모든 의료진들은 본인 몸의 위안보다는 환자를 위한 마음과 사명감이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글_ 윤내리 교수 / 산부인과 사진_ 김종민 대리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2015년 8월 8일 인하대병원과 어린이 재단의 주최로 멀고도 먼 나라 우간다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본래 2014년도 출발 예정이었던 의료봉사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여파로 2012년도에 이어 또다시 취소되었고, 올해 2015년도에 다시 진행되었다.

나 역시 에이즈와 에볼라,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질병이기에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아프리카로 떠난 우리는 그곳 사람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보았다. 의료캠프로 지프차가 들어서는 순간, 캠프장 내에 기다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서 박수를 치며 맞이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수많은 검은 피부의 사람들,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의 큰 눈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나의 첫 눈짐은 '두렵다'였다. 캠프 첫날은 모두에게 가장 힘든 날이었을 것이다. 몰려드는 환자들과 언어의 장벽, 낯선 환경에서의 미숙함은 진료와 의료 캠프의 진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실로 약국은 전쟁터와 같았다. 실제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으리라.

팀원들은 매우 빠르게 적응했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어진 의료캠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모든 팀원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은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신 이번 의료봉사의 단장님이신 임대현 교수님, 유일한 남자로서 선발대로 출발하여 캠프 진행 내내 불철주야 활약하신 김동현 교수님,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잃지 않고 늘 팀원들을 챙겨주신 전블맨 조세욱 교수님, 말라리아 환자 한 명이라도 약을 더 주려고 애쓰신 재치 넘치시는 조표연 박사님, 항상 유쾌하고 똑 부러지는 분위기 메이커 김윤미 약사님, 부지런하고 예쁜 얼굴에 마음씨까지 착한 박은경 간호사님, 그리고 수백 명의 많은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일하신 어린이 재단 팀원 분들, 행정의 김종민 대리님. 또 나의 통역을 해주었던 사라 나보사.

몸은 지치고 피곤했을지언정, 매우 즐겁고 보람된 값진 경험이었다.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히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대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여담으로, 우간다의 음식은 맛이 꽤 괜찮았다. 삼삼오오 식탁에 둘러앉아 스톤니를 마시며 짜파티와 사모사를 먹는 유쾌한 경험을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다.

첫날인 월요일 아침부터 수요일까지는 정형외과 권대규 교수님, 공공의료사업단 김시현 과장님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제1의 도시 타슈켄트에서 제일 큰 소아 전문병원으로 향했다. 뇌성마비로 인한 기형이 있는 아이들의 기형을 교정해주는 수술을 위해서다.

이 나라는 근친 간의 결혼으로 인한 유전병이 많다 들었다. 그래서인지 진료실에는 다양한 기형을 가진 뇌성마비 아이가 많이 보였다. 표정이 밝으면 밝든 힘들어 보이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눈물이 났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알았다더라면 유전병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치료기회가 많지 않았을까?

첫날 권대규 교수님이 수술환자 선정을 위한 진료를 보는 동안 수술실 사전 답사를 하였다. '설마 이것까지 가져가야 할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챙겨온다고 챙겨왔는데.. 어머니!! 설마 했던 수술실용 작업복과 슬리퍼까지도 챙겨왔어야 했다.

수술 현지 장비들을 확인하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기고.. 수술 시작 전부터 일이 꼬이니 점점 더 걱정이 앞선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려면 병원 내에서도 여기저기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진행도 늦고, 일일이 수술 전반의 모든 것을 챙겨야 하니 마지막 수술 마칠 때까지 맘을 놓을 수 없는 걱정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창문을 열고 지는 해로 인해 눈이 부셔도 그냥 진행해야 하는 수술실의 모습, 노후 된 장비들 등을 보니 새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니 자꾸 욕심이 난다. 이번엔 뼈 교정 수술 계획이 없었지만, 교정 수술을 해주었다더라면 훨씬 더 좋을 걸 하는 생각부터 이런저런 소소한 것이 유난히 아쉬웠다.

3일간의 수술을 마친 후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여 나보이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다.

진료는 통역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이루어지고, 진료실 밖에서 환자의 동선 관리를 하는 우리는 틈틈이 통역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눈짓 몸짓으로 소통하며, 우리네 시골처럼 정이 있고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느껴졌다.

이번 봉사에는 탈이 난 선생님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에게 체중감량의 좋은 기회(?)였고, 새로운 음식과 환경을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우즈베키스탄 봉사 활동을 함께하신 선생님들!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함께여서 더 좋았고, 모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또 한번 하고 싶다.

눈 부신 해를 가릴 수 없는 수술실 환경 눈짓 몸짓으로 소통해도 따뜻한 정은 우리네 시골과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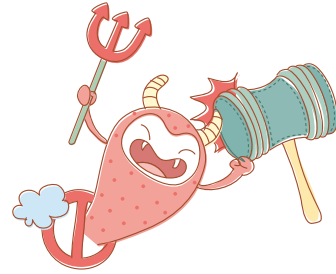
현지 병원 상황과 정확히 어떤 수술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출국을 앞두고 수술에 지장 없도록 막연하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책임지고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출발 전부터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안고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글_ 최인경 간호사 / 수술실 사진_ 김시현 과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인플루엔자 - 감기와 달리 심한 증상과 생명 위협한 합병증 유발



- Q**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 A** 감기는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며,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협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Q** 인플루엔자 백신은 언제 맞는 것이 좋을까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해마다 바뀌므로 매년 새로운 백신이 생산됩니다.
- A** 북반구의 경우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로 예상하며 백신 효과 지속기간이 약 6개월(3~12개월)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립 보건원 자료에 의하면 백신 접종 8~10일 이후에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 Q** 인플루엔자 백신이 3가 백신, 4가 백신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 3가지 형태가 있으나, 그 중 사람에게 문자를 일으키는 것은 주로 A와 B형입니다.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종(H1N1, H3N2)와 B형 바이러스(Victoria, Yamagata) 중 WHO에서 지정한 1종류를 예방하며, 4가 백신은 3가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 바이러스 항원까지 포함 되어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3가 백신만 국내에 유통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가 백신도 허가되어 접종할 수 있습니다.
- Q**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 없나요?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정란을 이용하여 생산하여,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 출시된 백신은 세포 배양 방식을 이용하여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Ref.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4th edition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전문 위원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fluenza, I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vaccine-preventable diseases.: Public Health Foundation 2011: 151-70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사랑, 이젠 보답해야 할 때!!

1994년 제일성심의원에서 출발해 현재의 의료법인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으로 김포시 통진읍에 자리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병원의 녹록지 않은 역사와 함께 한결같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다고 이순규 병원장은 늘 이야기한다.



제이에스병원
이순규 병원장

지역주민과 나란히 걷는 마음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했고 환자는 고객이나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진심이 통했는지 지역주민들이 우리 병원을 많이 아껴주고 신뢰하여 그 덕에 계속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양심을 버리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린 지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걸어온 지역주민이 있어 환자 진료 서비스는 물론 지역을 돌보는 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이순규 이사장은 전한다.

정확한 치료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어야

김포지역에는 수천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사업장이 있고, 밤낮으로 사업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 온다. 작은 상처에서부터 사지절단까지 여러 환자를 볼 때면 예방할 수 없음에 그저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제이에스병원은 병원을 찾은 수많은 재해환자가 빠른 시일에 일상으로 복귀해서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이라 생각하고 잘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을 영입하였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재해전문 센터를 확장 운영할 계획이며,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협조체계와 산업재해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히는 이순규 병원장이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제도 활성화해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김포, 강화지역에는 의료 취약계층이 나이를 불문하고 곳곳에 있다. 골절상을 입고도 불안정한 팔을 팔걸이에 의지한 채 생활하는 노인에서부터 무릎관절이 닳아 뼈마디가 부딪치는 통증을 참아가며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어르신, 가까스로 수술을 받고도 얼마 안 되는 통원 치료비 부담에 재활을 포기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의료정책의 그늘에 놓인 사람들을 볼 때면 이순규 병원장은 제이에스병원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지난 6월에는 대한노인회 산하 노인 의료니눔 재단과 손잡고 퇴행성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였다. 병원에서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간병실을 확장 운영하고 있어 좀 더 많은 노인환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의 건강 지킴이를 자청한 제이에스병원은 정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순회하며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모셔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평균수명 100세인 이 시대에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이에스병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031-989-1717

↓ 건강 지킴이로 지역을 돌보고자 하는 제이에스병원의 노력은 계속된다.
↓ 다문화 대안 교육학교인 해밀 학교(이사님·인순이)와 MOU를 체결하였다.



인하대병원, 2015년도 의료 질 평가 전 부문 1등급 획득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15년 의료 질 평가에서 전 부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료실적이 있는 전국 316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 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의 5개 영역, 37개 세부 평가 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에 환자중심 중증질환 치료의 중심 병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언제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으로 환자들에게 안전과 신뢰의 가치를 제공하는 의료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5년 의료 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써, 의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등급화하여 우수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평가 제도이다.

인하대병원, 전국 최대규모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운영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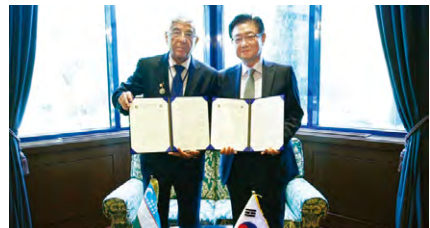
2015년 9월 1일(화), 인하대병원은 지난 8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2개 병동 92병상 확대한 데 이어, 9월부터 4개 병동 185병상을 추가로 확대하며 전국 최대규모인 총 10개 병동 468병상의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운영을 시작했다.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처음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2013년 7월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본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의료기관인증(JCI)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2회 연속 성공하며 구축한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처했다.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확대를 통해 환자안전관리에 더욱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포괄간호서비스 정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2015년 9월 7일(월), 인하대병원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타슈켄트 의과대학(Tashkent Medical Academy, Uzbekistan)의 의료기술 발전 및 교육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학술 교류 프로그램, 의료인력 상호 교류 및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증가하고 있는 건강회중 환자 및 만성 뇌혈류부전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 전수 및 발전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줄기세포 및 비침습적

치료법 등 최첨단 의료기술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해외에 전파하는 민간외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 올림푸스한국(주) 보건의료발전 협약 체결



2015년 9월 14일(월), 인하대병원은 올림푸스한국(주)(대표 오카다 나오키)과 ‘보건의료산업 발전 및 고속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공동연구 수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내시경을 포함한 여러 임상과의 의료기기 유효성과 성능에 대한 안전성 평가 사업수행, 의료기기 개발에 따른 상호협력과 공동연구 등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수준 높은 임상 의료교육 환경제공과 다양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전국 '포괄간호서비스의 선도적 역할' 서비스 도입 심포지엄 개최



2015년 8월 11일(화), 인하대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실무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2주년 기념과 더불어 사업 시행 결과와 추후 방향 제언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신규 참여 예정 의료기관들과 관련 기관들의 사업 관련 노하우에 대한 공유요청으로 인해 시행하게 되었다.

지역 중고생 대상 '제3기 나눔학교' 수료식 성료



2015년 8월 13일(목),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지난 8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4일간 인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기 나눔학교’의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천지역 중고생 30여명은 병원 직업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주안역 무료급식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의 꿈에 대해 생각하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의료사업지원단, 2015년도 제4차 국제의료봉사단 우간다 파견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2015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우간다에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했다. 임대현 교수(소아청소년과)를 단장으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8명으로 구성된 4차 봉사단은 우간다 기보가 커뮤니티 지역을 방문하여 보건환경이 열악한 현지인들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공공의료사업지원단, 2015년도 제5차 국제의료봉사단 우즈베크 파견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2015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2015년도 제5차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대한항공,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Soglom Avlod Uchun 재단과 함께 진행했다. 송준호 교수(신장내과/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를 단장으로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12명으로 구성된 5차 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나보이 지역을 방문하여 보건환경이 열악한 현지인과 고려인 1세대들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15년도 인하소아당뇨병 건강운동회 성료

지난 9월 5일(토), 인하대학교에서 ‘2015년도 인하소아당뇨병 건강운동회’를 실시했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인하대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는, 인천지역 소아당뇨병 환우와 가족 12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혈당검사 등 체계적인 소아당뇨관리에 대해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우즈베크 한인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인하대병원은 지난 6년 간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과 고려인, 거주 한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우즈베키스탄 한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공공의료사업지원단 국제의료봉사단은 2010년부터 지속해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리랑요양원, 나보이주를 방문해 현지인과 고려인 교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소외 이웃에 쌀 기증



9월 18일(금),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해 인천시 중구청 희망복지지원팀에 쌀을 전달했다. 기증된 쌀은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한영 센터장은 “지난 11일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을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기증하게 되었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김영모 의료원장,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일 명예 위원장 위촉
심사 시스템 시연 등 전반적 업무 체형**



지난 9월 16일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원장은 '심사평가원의 1일 명예 위원장'에 위촉, 심사평가원장(손명세)과 이종철 진료심사평가 위원장의 안내로 1일 의료기관 경영자 업무 체험을 했다. 의료기관 경영자 심평원 업무체험은 심평원이 의료기관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상생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체험 사업이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연평도 도서 지역 건강나눔 활동 성료**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은 2015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연평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5주기를 앞두고 연평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인천의료원, 중부해양경비안전서, 인천교통방송, 인천영상위원회, 인천올림픽도서관, 티브로드와 함께 진행했다.

2015년도 환자안전의 날 행사 성료



2015년 9월 22일(화) ~ 23일(수),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내년 6월에 있을 JCI 3차 인증에 대비하여 직원들과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15년도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손 위생 감염관리 미션수행, 환자안전상식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인하대병원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감염관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예의

2015. 7. 29
2015. 7. 30

출연: 감염내과 이진수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해외 여행시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치료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MBC 뉴스투데이
내용: 여름철 불청객 모기와의 전쟁

2015. 7. 22
2015. 7. 23
2015. 7. 27

출연: 정형외과 김영구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독이 되는 운동, 약이 되는 운동

출연: 소화기내과 권계숙 교수
프로그램: 채널 A 구원의 밥상
내용: 지금 먹는 음식이 미래의 건강을 책임진다

출연: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
프로그램: OBS TV 주치의의 내과: 57가지 이비인후과 질환

2015. 7. 29
2015. 8. 10

출연: 공황외과센터 신호철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해외 여행시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치료

World Best Safety

출연: 간호부장 이수연
프로그램: 경인방송 라디오 (FM 90.7MHz)
내용: 인하대병원 포괄간호서비스

2015. 8. 13
2015. 8. 24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김환철 교수
프로그램: TV조선 뉴스9
내용: 어린이용 장난감 함유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World Best Safety

출연: 피부과 변지원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매거진
내용: 피부암

2015. 8. 27
2015. 9. 5

Global INHA

출연: 간호부장 이수연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매거진
내용: 인하대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출연: 흉부외과 김영삼 교수
프로그램: YTN 헬스라이프
내용: 메디컬노트 - 폐암

2015. 9. 21
2015. 9. 29

World Best Safety

출연: 감염내과 백지현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매거진
내용: 쫄쫄기무시증

Global INHA

출연: 신장내과 황선덕 교수
프로그램: 인천교통방송 미추홀매거진
내용: 신우신염

Info desk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11월 11일(수), 12월 10일(목) 2016년 1월 13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 진료 상담실 (032)890-3600, 3638
암 환자 음악 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 진료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 세미나실	

건강공개강좌 안내

강좌 일정	제목	강사	장소	문의전화
2015. 10. 13(화) 오후 2시	핑크리본 유방암 건강공개강좌	성형외과 김연수 교수 외	3층 강당	032-890-2560, 2561
2015. 10. 16(금) 오후 2시	류마티즘 건강강좌	류마티스내과 박 원 교수 외	3층 강당	032-890-2211
2015. 10. 22(목) 오후 3시	관절건강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	신세계아카데미	

교육 안내

강좌명	제목	일정	문의전화	비고
의료인과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신규과정 - 의료인 갱신과정 - 일반인 과정 	홈페이지 참조	032-890-2130, 2142	등록비는 홈페이지 참조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교육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봉사를 원하는 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알고 싶은 분	2015.10.7(수)~8(목)	032-890-3744	수강료 2만 원 (교재 및 중식 제공)

전시회 및 공연 안내

전시일정	제목	참여단체/작가	장소	문의전화
2015. 10. 01 ~ 10. 23	Arts & Love 전	이경림 외 5인	2층 갤러리	032-890-2603(홍보팀)
2015. 11. 06 ~ 11. 27	개인전	장정숙		
2015. 12. 04 ~ 12. 24	이글스전	김기범 외 6인		

●상기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랑새 소식

*교육 일정은 건강교실 안내 참조

■ 지난 행사

- 9월 지역 팀별 모임

■ 다음 행사

- 10월 13일: 핑크리본 공개강좌 인하대병원 3층 강당
- 10월 18일: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여의도 공원
- 10월 15일: 파랑새 자유회 7시 30분 병원 앞 차량 출발
- 11월 17일: 파랑새 불우환우돕기 바자회 인하대병원 3층 강당
- 12월: 파랑새 송년회 (날짜, 장소 미정)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연구년(2015. 6. 1 ~ 11. 30)			암 다학제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남문석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화, 목	화	통합진료: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홍성빈	*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화, 수요일 오후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김소현	*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신석환	*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조영업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부신종양	(월, 화, 목) (화*목)		*13:30~15:30		
	외과	허윤석	* 위, 위암, 소화기외과			화, 목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목), (금, 목)	(월, 수, 목)		서비스진료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최윤미	*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수, 금	월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임재열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목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최정석	* 무통증편도수술, 소아비만외과,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유방암	외과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금) (화*목)		*13:30~15:30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목), (금, 목)	(월, 목)			
		권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화, 금	수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암 다학제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통합진료:		
		김경래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월, 수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화, 수요일 오후		
	외과	최선근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연수	* 영장견, 유행성, 미용수술, 미세수술, 피부암, 제자	수, 금	(목, 금)	금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목(▲)		▲간암클리닉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 중앙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진영주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화, 수, 금				송은섭	* 부인과중앙	월, (수, 목), (금, 수)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암 다학제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통합진료: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월 오후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중앙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원희	* 중앙,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월, 화, 금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돈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원희	* 중앙,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정 석	*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확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성도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수, 목	월, 목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임주한	* 중앙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임주한	* 중앙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연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수, 목	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임주한	* 중앙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폐암	호흡기내과	이흥렬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수(24주), 금	(): 주별 진료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임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목	화, 목			
		곽승민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수, 목)	수, 목(1, 3주)				최정석	* 두경부종양, 무통증편도수술, 소아비만외과, 갑상선,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류정신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통합진료:		
		남해성	해외연수(2015. 9. 1 ~ 2016. 8. 31)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정택	*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흉부외과	윤용환	* 폐암, 식도암	화, 목	화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목)	수, (금,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목), 화, 목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정택	* 흉선암	월, 금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보열증	(목, 목)		*13:30~15:30		
		윤용환	* 폐암, 식도암	화, 목	화						정신건강의학과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목)	수, (금, 목)						김명옥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최광석	*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목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목), 화, 목	수						신정현	*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수, 금	월(1, 3, 5주), 화	(): 주별 진료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변지원	*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흉터, 피부미용외과	수, 목	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임주한	* 중앙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혈액암	혈액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진탕, 뇌관상, 뇌내출혈, 뇌종양, 뇌염, 뇌경색, 뇌수막염, 뇌신경종, 뇌신경총, 뇌종양, 뇌신경총, 뇌신경총, 뇌신경총, 뇌신경총	월(▲), 금	수	▲뇌종양, 인면경연증, 상처신경클리닉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화, 목	수					박현선	* 뇌진탕, 뇌관상, 뇌내출혈, 뇌종양, 뇌염, 뇌경색, 뇌수막염, 뇌신경종, 뇌신경총, 뇌신경총, 뇌신경총, 뇌신경총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윤순환	* 척추종양(사이버나이프),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강준수	* 골종양, 인공관절염, 흉고관절, 관절염, 관절염	월, 수	월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이동주	* 중앙, 상지, 수부, 관절염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권대규	* 중앙, 소아정형, 뇌신경마비, 외상	화	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중앙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가치기부

♣ 인하대병원의 발전을 지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시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시 분들께는 병원 이용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후원 현황

일자	후원인	후원액(원)	후원분야	비고
2015.08.10	제8기 건강문화CEO과정 원우일동	20,000,000	일반발전기금	
2015.08.13	익명	5,000,000	일반발전기금	
2015.09.17	차상익 님	10,000,000	일반발전기금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15일, 25일).

- ▶ 급여공제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교직원에 한함).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대외협력팀
- ▶ 문의사항 : 궁금하신 내용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1 FAX : 032)890-3061 e-mail : hc@inhauh.com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팀



지역사회 건강 지키는 병원 지역을 위한 으뜸의료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_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

뇌신경센터
 척추센터
 통증센터
 혈관센터
 여성전문센터
 _산부인과,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사회공헌_연탄나르기 봉사



골든타임_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진료_환자중심 외래 전문질환센터



전문간호_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의료사각지대_도서지역 응급의료지원



해외나눔의료_개도국 의료봉사활동

D O I G

I N H A

U N I V E R S I T Y

H O S P I T A L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 인간을 위한 전문의료

전국 대학병원 유일, 최대규모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운영
 국제의료기관(JCI)평가 2회연속 성공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2회연속 성공